



## 보건복지동향

보건복지부 보도자료중 주요내용을 발췌한 것임.

- 편집자 주 -

### 저소득층을 위한 암 무료검진 및 노인치매병원 대폭 확충

보건복지부는 대통령 8.15 경축사 후속조치로 국민건강증진 종합대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.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- 의료보호대상자 전원과 건강보험가입자 중 하위 20%를 대상으로 위암·유방암 등 무료검진 실시
- 희귀·난치성 질환 의료비 지원대상 확대(크론병·베체트병) 및 저소득 소아 백혈병 환자에게 의료비 전액 지원
- 응급의료체계 개선을 위해 이동응급셋트(2기) 보강 및 9개 권역별 응급의료센터에 운영비 일부(5%) 지원
- 치매전문요양시설 대폭 확충, 70세 이상 저소득노인 의치무료보급 등 노인의료대책 적극 추진
- 전국 전염병 감시시스템 구축 등 방역체계 강화

## 2002년도 보건복지부 예산

보건복지부는 내년도 총 예산규모(정부안)가 금년 예산대비 22.1%가 늘어난 8조 245억원으로 확정되었다고 발표했다. 특히, 내년도 보건복지부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정부 전체 일반회계 예산의 7.2%에 해당하는 수준으로, 1981년 2.2%에서 2001년 6.7%(추경예산 포함전)까지 점차 증액되어 왔다. 이는 저소득층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, 인간개발중심의 생산적 복지 실현을 뒷받침하기 위한 예산을 반영한 결과라고 밝혔다. 2002년도 보건복지예산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.

### □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내실화를 위한 자활지원 인프라 확충

-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의 자활·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자활근로사업(2만명 → 4만명/월, 10개월)을 확대하고, 자활프로그램의 원활한 시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자활후견기관 42개소를 추가(200 → 242개소) 설치·운영 및 사회복지전담공무원 1,700명을 증원 배치(5,500 → 7,200명)함.

### □ 노인·장애인·아동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서비스 지원 확대

-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경로연금 지급대상자를 71만 5천명에서 80만명으로 확대하고, 지원수준도 1인당 월 5천원(1인당 월 3~4만원 → 3.5~4.5만원)씩 인상 지급함.
- 거동이 가능한 결식노인에게 경로식당에서 점심을 제공(3.4만명/일)하며, 거동이 불편하여 경로식당을 이용하지 못하는 노인에게는 가정에 식사를 배달(1.7만명/일)하고, 또한, 결식아동(1.5만명/일)중 취학아동(1.4만명)에게는 석식, 미취학아동(1천명)에게는 중·석식을 제공함.
-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장애수당 지급대상자를 9만 2천명에서 11만명으로 확대하고, 지급수준도 1인당 월 4만 5천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 지급함.
  - 10세 미만 청각장애아동에게 인공달팽이관 수술비(100명, 1인당 2천만원) 지원
  - 장애인 차량용(30만대) LPG 세금 인상분을 보전(대당 월평균 2만 1천원)하여 장애인의 사회활동 지원
- 아동의 건전육성과 여성의 사회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보육사업(14만 7천명 → 19만 3

천명)을 확대함.

- 특히, 농어촌지역 저소득층 만 5세 아동(15만 5천명)에서 전국 저소득층 만 5세 아동(8만 7천명)으로 보육료 지원 대상 확대
-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근무여건 개선과 수용자 보호 향상을 위해 2교대 근무제 단계적으로 확대·시행함.
- 금년 장애인 생활시설, 노인요양 및 전문요양시설, 영아시설(3,305명 추가 배치, 244억원 지원)에 이어 내년도에도 아동시설의 보육사(223명, 17억원) 2교대 근무 확대·시행

□ 질병관리체계의 강화

- 치매노인보호를 위해 노인전문(치매)요양시설(54 → 84개소)을 대폭 확충하고, 노인치매전문요양병원(18 → 24개소)도 확대함.
- 콜레라 등 전염병 예방·관리를 위한 국가방역체계의 강화를 지원(33억원 반영)함.
- 충치예방을 위해 전국 초등학교 치아홈메우기사업(초등학교 1학년생 27만명, 1인당 1만 6천원)을 지원함.
- 그리고 국가 암치료의 선진화를 위해 국립암센터에 양성자 치료센터를 설치(기본설계비 등 100억원 반영)함.

□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비 지원 대폭 확대

- 고액부담 회귀·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자를 4종 7,115명에서 6종 7,516명으로 확대하고, 건강보험 본인부담 의료비를 전액 지원함.
- 만성신부전증, 근육병, 혈우병 및 고셔병 환자(4종)에서 '베체트병 및 크론병 환자' 등 2종을 추가함.
- 저소득층 소아백혈병 환자에 대한 의료비(15세 이하 아동 500명, 1인당 평균 5백만원)를 지원함.
- 저소득층에 대한 조기 무료 암검진사업(건강보험가입자 중 하위 20%, 99만명: 위암 57만명, 유방암 42만명)을 대폭 확대함.

- 기초생활보장 수급노인을 대상으로 의치·보철사업(4,760명)도 단계적으로 확대함.

- 또한, 장애인복지시설에 보호중인 장애인의 구강보건을 위해 치과유니트(20개소)를 지원함.

□ 21세기 대표적 고부가가치 지식산업인 보건의료산업육성을 위해 정부 지원 확대  
(620 → 811억원, 30.8% 증)

- 의과학·의약품·휴먼의료공학 등 보건의료기술개발연구를 지원(705억원)함.

- 생명과학기술을 이용하여 질병의 예방·진단·치료기술 개발을 위한 '바이오보건기술 개발연구'를 지원(106억원, 신규)함.

□ 지역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및 의료보호 체불진료비 해소를 위해 국고 지원 확대

- 지역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해 지역보험 총 지출의 40%를 국고에서 지원(1조 9009억원 → 2조 5747억원, 35.4% 증)함.

- 의료보호 체불진료비 해소를 위해 국고 지원을 확대(1조 1397억원 → 1조 6904억원, 48.3% 증)함.

## 의료보호, 10월부터 '의료급여'로 변경 시행

보건복지부는 의료보호법이 2001년 5월 24일 『의료급여법』으로 개정·공포됨에 따라 『의료급여법』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마련하여 10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. 변경되는 의료급여법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- 급여비용 지급업무를 현행 시·군·구에서 건강보험공단으로 위탁하여 소재지와 상관 없이 진료비가 전국적으로 형평성 있게 지급되고 지급기간도 단축되도록 함.

- 의료급여증 발급업무를 현행 건강보험공단에서 시·군·구로 환원하여 발급기간을 대폭 단축함.

- 의료급여기관의 허위·부당청구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정지처분기간을 현행 90일에

서 1년으로, 과징금부과기준을 총부당금액의 4배 또는 5배로 하는 등 행정처분기준을 강화함.

## 2002년도 국민연금기금운용계획 의결

보건복지부는 9월 20일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개최하여 2002년도 국민연금기금운용계획(안)을 심의·의결하였다고 발표하였다.

- 2002년도 국민연금기금운용계획의 수입은 신규조성액 17조 6736억원과 투자원금회수금 11조 1201억원을 포함하여 총 28조 7937억원으로서, 연금급여 등에 2조 3941억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여유자금 26조 3996억원은 공공부문에 10조원, 복지부문에 122억원, 금융부문에 16조 3874억원을 각각 운용하여 2002년도말 기준으로 90조원의 기금이 적립될 전망이다.
- 공공부문에 대한 투자는 2001년도부터 공공자금 관리기금에의 의무예탁이 폐지됨에 따라 경쟁입찰 방식에 의한 국고채 매입으로 이루어지게 되며 2002년도 국고채 매입규모는 2001년과 동일하게 10조원을 책정함.
- 또한 가입자·가입자이었던 자 및 수급권자의 복지증진을 위해 활용되고 있는 복지사업에는 2001년 계획보다 다소 축소된 122억원을 책정하였으며, 가입자들의 생활안정 대여자금과 복지타운 운영비로 사용됨.
- 금융부문 운용액은 기금규모의 증가에 따라 2001년 계획보다 3조 3923억원이 증가된 16조 3874억원을 운용할 계획이며, 이중 주식관련 투자액은 총 2조원으로서 직접투자 6000억원(거래스 5000억원, 코스닥 1000억원), 간접투자 1조 4000억원(국내투자 6000억원, 해외투자 5000억원, 벤처투자 1000억원, 실적상품 2000억원)으로 나누어 운용할 계획임.